

선수 육성 '2군 정상화'가 먼저다



〈하〉 기본부터 다시 다져야
 퓨처스 시즌 36승 1무 67패
 승률 0.350 남부리그 최하위
 선수층 얇아 라인업 채우기 급급

다시 뛰는 '호랑이 군단', 2군 정상화가 먼저다. KIA 타이거즈는 2022시즌 가장 공격적인 투수를 한 팀이다.

150억원을 들여 나성범을 6년 계약으로 영입했고, 미국에서 돌아온 양현종과도 4년 총액 103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시즌 중반에는 키움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박동원을 영입하기도 했다. 현금 10억 원과 내야수 김태진 그리고 2023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까지 내주면서 전력 보강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KIA는 시즌 최종전을 앞두고 어렵게 10.5경기 차 5위를 확정했고, 4년 만에 맞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힘도 써보지 못하고 2-6패를 당하면서 1차전에서 짐을 썼다.

2022년은 구단이 '명가 재건'의 원년으로 삼은 해이자 뜨거운 가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적기이기도 했다.

구단은 감독, 단장, 사장을 모두 교체하면서 변화의 시즌을 준비했다. 구단의 투자와 팀의 주축 선수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올 시즌은 뜨거운 가을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기도 했다.

KIA 투타의 최고참은 양현종과 최형우다.

올해로 35살과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어 두 베테랑은 올 시즌 노련함은 보여줬지만, 마운드, 타석에서의 매서움은 떨어졌다.

양현종은 와일드카드 1차전 선발 자리를 선 놀린에게 넘기고 2차전을 기다렸지만, 팀의 패배로 경험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최형우도 후반기 최형우다운 면모는 보여줬지만 잔인한 봄날을 보냈다. 전반기 78경기 타율이 0.227에 그쳤고, 7개의 병살타도 기록했다.

하락세의 베테랑과 여전한 '실력 격차'도 내년 시즌 고민이다.

올 시즌 KIA 팬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특급

신인' 김도영의 육성이었다.

모처럼 야수진에서 대형 신인이 입단했고, 시범 경기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만큼 기대감을 컸다. 하지만 초반 야수진들의 동반 부진 속 김도영의 역할이 축소됐다.

'5할 5위'라는 목표에 매몰되면서 김도영의 육성법, 활용법은 시즌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차세대 거포'로 주목했던 김석환에게도 2군 무대는 좁았지만, 1군에서의 나라는 좁았다.

미래 투자에 아쉬움을 남겼던 올 시즌, KIA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선수들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1군 선수단 격차는 여전히 크다. 여기에 육성의 바탕이 되는 2군의 2022시즌도 처참했다.

KIA 퓨처스 선수단의 올 시즌 성적은 36승 1무 67패. 0.350의 승률로 남부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다.

2군은 성적보다는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결과만큼이나 내용이 좋지 못했다는 게 문제다. 선발진과 내야가 동시에 붕괴하면서 육성이 아닌 라인업 채우기에 급급한 시즌이 전개됐다.

확실한 선발진 없이 '1번 투수' 개념으로 마운드가 돌아가면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뛰어든 김찬민, 황동하, 강병우 등이 어깨가 무거운 시즌을 보냈다.

내야 상황도 심각했다. 얇은 선수층에 부상 선수들까지 겹치면서 포수들이 내야수로 그라운드 에 오르면서 힘겨운 시즌을 보냈다.

1군 고정 라인업을 뚫고 기회를 잡은 '셋백' 선수도 탄생하지 않으면서 동기 부여도 떨어졌다.

이런 내부 구조 탓에 KIA는 위기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내년 시즌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다.

두터운 선수층을 바탕으로 한 무한 경쟁을 통해서 전제적인 전력을 키우고 꾸준함을 만들어가는 게 KIA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시작점은 11월 시작되는 마무리캠프가 될 전망이다.

KIA는 오는 1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에 마무리캠프를 꾸리고 원석 다듬기에 나선다. 주전 선수들은 합병에서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선수단 개편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KIA가 냉정하게 올 시즌 성과와 실패를 돌아보고, 원점에서 방향을 세우고 탄탄한 기초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키스 에런 저지 통쾌한 홈런포 미국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가 18일(현지시간) 뉴욕 양키스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 5차전 2회에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를 상대로 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 양키스는 클리블랜드에 5-1로 승리를 거둬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시리즈(ALCS·7전4승제)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원정 16강 꿈 이룰까

카타르 월드컵 D-31
 창-손흥민·방패-김민재 무장
 또 한 번의 대이변 연출 기대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지난 4년간 흘린 구슬땀의 결실을 볼 시간이다.

한국 축구의 역대 최고 성적은 단연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의 4강 진출이다.

한일월드컵 전까지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거둔 적이 없던 한국은 홈에서 4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홍명보, 황선홍, 안정환, 이영표, 박지성 등으로 꾸려진 한국 대표팀의 활약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축구 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하지만 이후로는 고배를 들 일이 더 많았다. 우리나라의 원정 대회 최고 성적은 2010년 남아공 대회 16강 진출로, 전후로는 한 번도 원정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해본 적이 없다.

최근 두 차례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탈락에 경험했다.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1무 2패를 당했고, 2018년 러시아에선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2-0으로 꺾었으나 1승 2패를 기록하고 돌아왔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8위인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 H조에서 포르투갈(9위), 우루과이(14위), 가나(61위)와 경쟁을 펼친다.

쟁쟁한 상대들 사이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목표는 12년 만의 원정 16강 진출이다.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팬들은 선수들과 함께 잔치를 보다 길게 즐기고 싶은 마음이다.

대표팀 역대 최고 골잡이로 꼽히는 손흥민(토트넘)과 '최강 방패' 김민재(나폴리) 등이 주축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역대 원정 월드컵 최고 성적을 향한 염원은 커진다.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지난 2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 대 카메룬 축구 대표팀의 평가전에서 김민재가 카메룬 뱅상 아부바카르를 마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 23골을 넣어 아시아 선수 최초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쥔 손흥민은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더욱이 그는 대표팀에선 주장으로서 남다른 책임감으로 무장하며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 시즌에도 소속팀에서 5골 2도움을 올린 그는 현재 월드컵 본선에서 2경기 연속 및 2개 대회 연속 득점에 성공해 3골을 기록 중이다.

카타르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면 박지성, 안정환을 넘어 한국 축구 역대 월드컵 본선 득점 단독 1위에 오르고, 월드컵 3개 대회 연속 득점으로 박지

성(2002·2006·2010년)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또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득점할 경우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월드컵 본선 3경기 연속 득점의 기록을 쓰게 된다.

수비진에선 유럽 리그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센터백 김민재가 든든하게 뒤를 받쳐 안정감을 더한다. 중국, 터키 리그를 거쳐 올여름 이탈리아 무대에 안착한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정규리그 9경기(2골)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경기 등을 소화하며 존재감을 굳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조별리그 3경기 모두 붉은 홈 유니폼 입고 뛰다

본선 34경기 유니폼 색깔 전적
 붉은색 18전 4승 4무 10패
 흰색 12전 2승 5무 5패
 파란색은 4전 4패

태극전사들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붉은 홈 유니폼을 입고 뛰다.

19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FIFA는 최근 다음달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각 팀이 착용할 유니폼 색상을 결정해 통보했다.

한국은 11월 24일 열리는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1차전을 시작으로 28일 같은 달 가나와 2차전, 12월 3일 포르투갈과 3차전까지 3경기에서 상·하의와 스타킹까지 붉은색의 주 유니폼을 입는다.

골키퍼는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노란색, 3차전에서 하늘색 상·하의를 착용한다.

한국이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모두 붉은 유니폼을 입는 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36년 만이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부터는 상대 팀 유니폼 색상에 따라 흰색 또는 파란색 보조 유니폼을 입고



한 경기 이상을 뛰었다.

그간 한국은 월드컵 본선 34경기에서 붉은 유니폼을 입고 18전 4승 4무 10패를 기록했다. 흰색을 입고는 12전 2승 5무 5패, 파란색은 4전 4패다.

한국과 경기에서 우루과이는 주 유니폼인 하

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는다.

가나와 포르투갈은 상·하의 흰색의 보조 유니폼을 입는다. 포르투갈은 주 유니폼 색상이 우리와 비슷한 짙은 빨간색이지만 대신 표상 한국이 홈팀에 배치돼 보조 유니폼을 입게 됐다. /연합뉴스

메시가 전망한 우승 후보는 브라질·프랑스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11월 카타르에서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우승 후보로 프랑스와 브라질을 지목했다.

메시는 19일(한국시간) 디렉TV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월드컵에서는 항상 브라질,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스페인 등이 우승 후보로 거론되기 마련"이라며 "이 가운데 반드시 골라야 한다면 브라질과 프랑스가 가장 우승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두 팀은 선수들이 꾸준히 호흡을 맞춰왔다"며 "감독도 바뀌지 않고 오래 팀

을 이끌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는 디디에 데샹 감독이 2012년부터 지휘봉을 잡고 있고, 브라질은 치치 감독이 2016년부터 팀을 이끌고 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미국 CBS 전망으로는 우승 후보 '1순위'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